



인기 폭발 국내 최대 브랜드 '녹색한우' 추석 판촉

명품 한우 사고, 지역축산농 돕고

을 추석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그 어느 때보다 차례상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우 광역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인기몰이를 중인 '녹색한우'로 선물을 하면 어떨까.

녹색한우는 전라남도 10개 시·군(광주, 무안, 신안, 해남, 강진, 완도, 영암, 나주, 화순, 장성) 8개 축협(목포무안신안축협, 강진완도, 광주, 나주, 영암, 장성, 화순, 해남) 1200(6만5000두) 한우농가가 한마음으로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우 브랜드로 대한민국 대표 한우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녹색한우는 환경 친화적 축산을 위해 한우개량단지를 통한 우수한 한우만을 사육하고 있다.

특히 녹색한우의 사양프로그램에 의한 사양, 사료 통일, 한우개량 농가 육성사업, 송아지 안정제 사업, 최고기 생산이력제 참여와 친환 경축산물(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등을 바탕으로 생산 및 사양관리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한우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을 위해 HACCP적용 도축장 및 가공공장 이용과 녹색한우만의 엄격한 품

질 및 위생기준을 적용해 고품질의 위생적인 한우 생산으로 가공·보관·운송·판매 등 전과정의 콜드 체인 시스템(Cold-Chin System)을 적용하고 있다.

판매체계에서도 '녹색한우'는 1B등급 이상의 균일한 품질의 한우와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단계의 최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적용해 투명하고 체계화된 관리를 하고 있다.

품질유지를 위해서 산·학·연과 연계한 과학적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남의 산·학·연·관의

연계와 전남의 참여 시·군의 자금 및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각 지역 축협과 농협사료의 체계적인 농가관리 서비스로 생산되고 있으며 전남의 대학과 연구기관의 고품질 한우 생산기술 지도아래 과학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녹색한우 관계자는 "고객만족센터, 환불보상제, 리플제 도입을 통한 고객 서비스를 위해 언제나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녹색한우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의, 나주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061-332-0214.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남구 롯데슈퍼 노대점 영업 강행

"경영난" 의무휴업 거부...市, 과태료 부과 방침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 재개 첫 날인 23일 광주시 남구 롯데슈퍼 노대점이 또 영업을 강행했다.

이 점포는 의무휴업이 처음 시행됐던 지난 4월 8일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을 한 바 있다.

롯데슈퍼 노대점의 경우 점주의 경영독립성이 보장된 가맹점포로 롯데본사에서 강제로 휴업을 지시할 수

없다. 당초 시와 본사는 노대점에 의무휴업 실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지만 평소 매출부진에 시달렸던 점주가 이를 거절한 채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업체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롯데 본사측도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한 롯데슈퍼 노대점에 대해 위약금 부과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이날 단속요원 20여 명을 투입해 대형마트와 SSM 영업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SSM인 롯데슈퍼 노대점을 제외한 광주 시내 대형마트 1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16곳은 문을 닫았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대기업에게 1일 의무휴업 위반 시 1000만 원의 벌금은 적은 금액"이라며 "광주시가 벌금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미기자 emlee@

택배 피해 전년보다 50% 증가

광주 235건...전자상거래 2년새 2배 ↑

30대 이모씨는 지난해 9월 19일 포도·복숭아·사과를 7만5000원에 구입해 택배로 배송을 의뢰했다가 배송 중 과일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택배회사에 과일 값 7만5000원과 배송료 4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택배회사는 포장이 잘못되어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배상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씨와 같이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선물 구매와 택배 이용이 늘면서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광주본부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추석명절 기간(명절 전후 15일)동안 호남·제주지역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자상거래'가 636건으로 2010년 121건보다 201% 급증했다. 또 '택배 서비스'도 지난해 121건으로 같은 기간 80건에서 5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35건, 전남 192건, 전북 255건, 제주 75건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배송지연 및 미배송 ▲주문과 다른 물품 배송 ▲부담금 청구 ▲제품 하자 ▲계약 해제 및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은 ▲물품의 파손·분실 ▲인수부재 시 후속 조치 미흡 ▲배송지연 또는 미배송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배달된 물품은 반드시 하자 여부를 확인해 인수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며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출 건전성 악화

가계 부도위험 ↑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일부 대출의 건전성이 악화해 가계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국내은행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야' 보고서에서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며 가계 차주의 부도확률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권 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의 연체율은 올해 1월 0.98%에서 4월 1.08%, 7월 1.13%로 계속해 확대됐다.

7월 말 현재 부채 총액 대비 신규 연체발생액 비율 역시 0.20%로 전년 동월 (0.13%)이나 올해 4월(0.15%)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는 새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 대출상품 취급이 늘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대학생홍보대사들이 지난 21일 전남대학교 용봉대동풍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희망의 동전발' 행사를 펼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소외이웃 어려움 함께 합니다

光銀 대학생 홍보대사 행사 수익금 기부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의 '제5기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44명은 지난 21일 전남대학교 축제 '용봉대동풍이' 현장에서 지역의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한 다양한

기부행사를 펼쳤다.

광주은행 홍보대사들은 전남대학교 축제를 찾은 많은 대학생들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의 동전발' 및 '광은 카페' 플라로이드 사진 판매등

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KJB사랑센터' 또는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로 5기째 활동중인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광주·전남지역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사회공헌활동까지 전개해 지역 대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광주은행과 지역사회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랜차이즈 천국 '광주'

가입률 18% 전국 1위...기간은 가장 짧아

광주지역이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프랜차이즈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입기간은 전국에서 가장 짧은 지역에 꼽혔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본 지역별 사업체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프랜차이즈 가입률이 18.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프랜차이즈 가입기간은 2년9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짧았다.

광주·전남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가 10곳 중 7곳으로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영세했다.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가 광주는 전체 사업체(100곳)의 76.9%(77곳)에 달했고 전남은 전체 12곳 중 75.8%(95곳)나 됐다.

하지만 1~4명 사업체 영업이익률은 광주가 2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남이 27.4%로 뒤를 이었다.

전남의 경우 지역별 영업이익률이 11.2%로 충남(11.8%)·충북(11.4%)과 함께 이익률이 높은 지역에 꼽혔으며, 인구 1명당 매출액도 9900만원으로 울산(2억7000만원), 서울(1억4200만원), 충남(1억200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유가 자유화' 이후

기름값 130% 올라

1997년 '유가 자유화'가 실시된 이후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2.3배, 4.6배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팔리는 보통휘발유 가격은 유가 자유화 시행 첫해인 1997년 0.24 평공 838원에서 작년에는 1929원으로 130%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는 376원에서 1745원으로 364% 수직 상승했다.

정부는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가격을 정책적으로 통제해오다 1997년부터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기는 유가 자유화를 시행했다. /연합뉴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파워리버캡!

!그린알로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그린파워리버캡 출시!

그린파워리버캡은 100% 천연식물 밀크씨슬에서 추출한 실리마린 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간 건강지표를 나타내는 효소인 GOT, GPT 수치개선에 도움을 주며, 천연원료 비타민,미네랄(11종)이 에너지 대사 활성을 도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헛개나무열매 추출물, 민들레 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 추출물, 운지버섯다실체 추출물, 울금 추출물, 효모추출물(글루타치온) 등 부원료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1%유지도 함유하지 않은 정제형 복합기능성 제품입니다.

섭취대상자

-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간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
- 잦은 회식과 야근에 늘 지쳐있으신 분!
- 업무량이 많아 피로하신 분!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그린알로에 제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객상담실 080-234-6588

